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 운용기간 : 2022. 7.27. ~ 2022.10.26.



목 차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 ▶ 재산현황
- ▶ 펀드의 투자전략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 기간(누적) 수익률
- ▶ 손익현황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5. 비용현황

-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 ▶ 총보수, 비용 비율

6. 투자자산매매내역

-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을 추이

7. 동일한[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현황

- ▶ 투자현황

8. 펀드 관련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 가.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 ▶ 나. 주요 위험 관리 방안
- ▶ 다. 자전거래 현황
- ▶ 라. 주요 비상대응계획

<공지사항>

<참고-펀드 용어 정리>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이를 막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금리인상, 그리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잦아들고는 있으나 아직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연초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도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세계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좋은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고 지금이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까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마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이 펼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한 무제한 돈줄기는 곳곳에서 자산버블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소비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사회는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각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혼란에 전쟁까지 겹치며 상반기 동안 예상보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아직도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인상이 진행되면서 자산버블도 꺼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주식시장은 연초 이후 큰 폭의 하락세가 진행되었고 각국의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은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그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미국 달러화만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은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소비경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급증했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금리가 오르면서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 부담과 대출이자 부담, 대출 부실화 우려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으로 주식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사는 흔들리지 않고 낮은 가격과 시간에 투자하는 우량주 장기투자 철학을 견지하며 일관성 있게 자산운용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 고성장주 투자가 대세이고 진리로 여겨졌지만 자산 시장은 항상 주기적으로 순환하면서 결국은 시장은 자산 본연의 가치를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소수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상을 읽는다면 큰 손실을 피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좋은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여건이지만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배당수익률도 높은, 사고 발 땀고 편안히 잘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어느 때보다도 대량으로 낮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주는 시장의 흐름에 연동하여 움직이는 주식들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재평가되거나, 기업이 변할 때, 또는 실물경기의 변화가 예상될 때, 급격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불확실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가치주 투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아래는 막아놓고 상방은 무한대로 열어 놓는 투자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자산은 장기 투자하더라도 정해진 금리 이상의 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량 가치주의 시세는 바닥, 펀드시장에서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비중은 최저, 배당수익률은 최고인 지금이 바로 놓치기 어려운 투자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신영자산운용은 항상 무한한 책임감으로 고객님들의 자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자산운용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 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

허남권



안내사항

신영자산운용은 당사 유튜브에서 당사의 투자전략 및 상품과 시장에 대한 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고객님의 투자판단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QR코드 인식 가능 앱(예 : 카메라,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이용하여 우측의 QR코드를 비추시면 당사 유튜브로 연결됩니다.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고난도 펀드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71941	4등급(보통위험)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7. 7.27.	
운용기간	2022. 7.27. ~ 2022.10.26.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레버리지(차입 등) 한도	-			
자산운용회사	신영자산운용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신영증권,미래에셋증권 외 12개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품의 특징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를 저평가된 우량가치주 등에, 70% 이하를 안정적인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목돈 마련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	자산 총액(A)	5,840	5,713	-2.17
	부채총액(B)	15.62	83.09	431.91
	순자산총액(C=A-B)	5,824	5,630	-3.33
	발행 수익증권 총 수(D)	5,585	5,606	0.37
	기준가격 ^{주)} (E=C/Dx1000)	1,042.75	1,004.25	-3.69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주) 상기 재산현황에서 기준가격의 증감률은 펀드의 수정기준가를 통해 계산된 수치가 표기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3.69%로 비교지수 수익률 -2.14% 대비해서 -1.55%p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27% + KIS중단기지수(1~2년) 63% + Call 10%)

[주식 부문]
금융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금 약세전환 되었습니다. FOMC(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점도표에서 올해와 내년 목표금리 중간치가 종전 3.4%, 3.6%에서 4.4%, 4.6%로 1%p 상향 조정되어, 올해 2차례 남은 FOMC에서 125bp 금리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정책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 코멘트하여 현재의 긴축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 여파로 달러 인덱스는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글로벌 주식 시장은 대부분 하락하였는데 최근 반등세에 있었던 아시아 신흥국 시장이 더 큰 낙폭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였으며,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동 펀드는 주식시장 하락 여파로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철강, 일부 소재 업종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보였지만, 건설, 유틸리티 등 대부분 업종에서 부정적인 기여가 나타났습니다.

[채권 부문]
8월 초 국내시장은 한은 총재가 8월 빅스텝(50bp)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부분과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코멘트로 대외 긴축 우려가 확대되며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7월 물가상승률이 시장예상치인 6.3%에 부합했고 BOE(영국 중앙은행) 회의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금리상승은 거의 되돌려졌습니다. 월 중순에는 미 CPI(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발표되었지만 오히려 23년 금리인하 기대감 하락과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얘기되며 금리는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여 베어 스티프닝(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현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7월 FOMC(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과 유럽의 높은 물가로 선진국 긴축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통위를 앞두고 외국인 선물 순매도가 이어졌고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9월 초 국내시장은 미국 8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긴축우려가 소폭 완화되는 등 금리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호주가 네 번 연속 50b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향후 금리인상 속도조절을 얘기했고 전체적으로 선진국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국내금리도 하락했습니다. 9월 미 FOMC에서는 시장예상대로 기준금리를 75bp인상했으나 점도표 상 올해와 내년 금리수준을 각각 4.4%, 4.6%으로 크게 상향조정하면서 미국금리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FOMC이후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고 한은총재의 매파적인 코멘트에 국내시장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50bp인상 및 한국 최종 기준금리 3.75% 가능성을 빠르게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말에는 보수당 집권 이후 영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며 영국재정 악화 우려에 따른 영국국채 금리 급등과 파운드화 약세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국내금리도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4.5%를 돌파하자 한은과 기재부가 채권시장에 5조를 투입하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10월 초 국내시장은 영국발 스트레스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향후 고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매파적인 뷰를 제시했고 한은총재도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언급해 시장은 금리인상 베팅이 일어나며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영국이슈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미 CPI경계심으로 금리상승 압력이 높아졌지만 10월 금통위에서 25bp인상 소수의 견이 나오고 미 연준에 따른 기계적 기준금리 조정 전략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은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월 중순 이후 국

고채 시장은 대외 CPI지표 서프라이즈가 계속되며 긴축정책 강화 우려가 계속되었고 레고랜드 ABCP 디폴트 여파로 신용시장의 유동성 여건이 급격하게 냉각되었습니다. 금융위에서 1.6조원의 채안펀드를 시작했지만 시장 약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기재부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규모로 확대했고, 한은이 적격담보 증권에 은행채와 일부 공사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증권사와 증권금융 대상으로 6조원 수준의 RP매수를 진행한다는 정책을 연달아 결정하자 시장의 극단적인 불안감과 유동성 마비 상황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시점, 국내외 경기지표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모니터링하며 운용 전략의 실행 기회를 모색해 나갔습니다. 국내물가가 정점을 기록한 후 둔화되기 시작했고 국고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3.50~3.75% 수준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듀레이션을 소폭 늘리고, 높은 캐리이익을 확보하고자 1년 내외의 단기물을 금리매력이 높은 2년물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펀더멘털 대비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높아져 가격매력이 생긴 특수채와 카드채에서 매수기회를 찾고자 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 부문]

증시의 하락이 긴축에 대한 우려를 과도하게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수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8월까지의 미국 인플레이션은 2개월 연속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며, 금리 인상 부담, 실질 구매력 약화, 공급난 해소 등으로 하락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3분기 코스피 실적은 반도체 사이클 둔화와 수요 감소로 하향 국면에 있겠지만, 환율 상승이 수출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실적 감소폭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10월 3연임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전후로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 본격적인 수요 회복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반영된다면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저평가된 종목들과 보유 현금, 자산 가치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구성하여, 펀드 전체적인 배당수익률을 높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동 펀드는 금융과 지주사 종목들을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대란은 초겨울까지 지속될 것이라 판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채권 부문]

월 초 FOMC에서 미 기준금리는 75bp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긴축정책 스탠스가 11월 시장과 월말 국내 금통위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최근 캐나다와 호주가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나선 가운데 경기지표들이 지속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도 점차 긴축속도 조절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유지하면서 후행지표인 고용 등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심리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월 금통위는 기준금리 50bp인상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신용이벤트 발생으로 국내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25bp인상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내물가도 둔화되고 경기지표는 이미 악화 중이기에 한국도 금리 인상기 후반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시장에서 은행채, 공사채 발행비중 확대로 우량채권 크레딧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대책을 감안할 때 공적기능이 높은 우량 공사채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1월은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결정과 향후 방향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사는 경기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금리 레벨에 따라 듀레이션^{주1)}을 전략적으로 조절할 계획입니다

주1) 듀레이션(Duration) :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율을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듀레이션이 클수록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폭이 증가하며, 반대로 듀레이션이 작을수록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이 변동폭이 감소합니다.

▶ 기간(누적) 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	-3.69	-7.20	-7.62	-9.05
(비교지수 대비 성과)	-1.55	-2.39	-2.45	-1.08
비교지수 ^{주1)}	-2.14	-4.81	-5.17	-7.97

주1) 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27% + KIS중단기지수(1~2년) 63% + Call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	-1.86	1.54	-1.90
(비교지수 대비 성과)	-1.22	-3.21	-5.89
비교지수 ^{주1)}	-0.64	4.75	3.99

주1) 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27% + KIS중단기지수(1~2년) 63% + Call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200	-9	0	-2	0	0	0	0	0	4	-15	-222
당기	-162	-44	0	0	0	0	0	0	0	5	-15	-216

3.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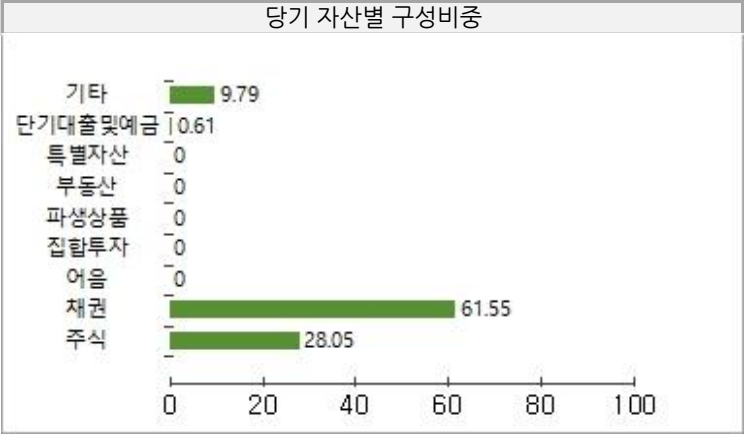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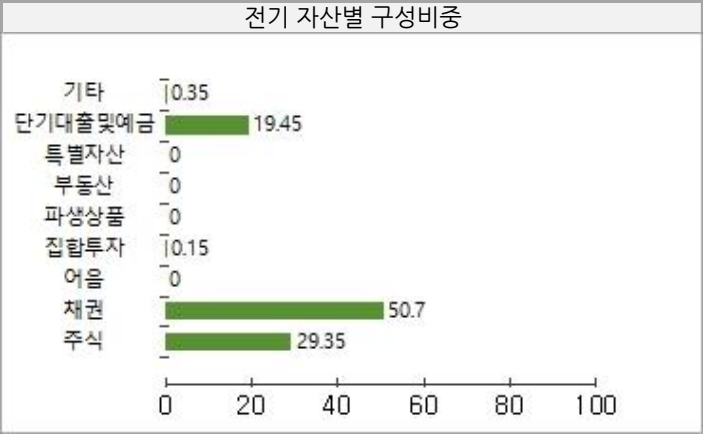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0)	1,603 (28.05)	3,516 (61.5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5 (0.61)	559 (9.79)	5,713 (100.00)

합계	1,603	3,516							35	559	5,713
----	-------	-------	--	--	--	--	--	--	----	-----	-------

*(): 구성비중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30.76	6	유통업	5.79
2	화학	8.23	7	금융업	5.73
3	코스닥	7.03	8	건설업	4.80
4	운수장비	6.42	9	증권	4.72
5	서비스업	5.87	10	기타	20.66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삼성전자	5,649	336	5.87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삼성SDI	80	54	0.95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삼성물산	459	51	0.90	대한민국	KRW	유통업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종목을 기재합니다.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1875-2412(21-10)	1,500	1,440	대한민국	KRW	2021.12.10.	2024.12.10.		N/A	25.20
하나은행45-09012갑-08	1,000	990	대한민국	KRW	2022. 9. 8.	2024. 9. 8.		AAA	17.33
한국전력1272	600	594	대한민국	KRW	2022. 9. 6.	2024. 9. 6.		AAA	10.40
국고03125-2506(22-4)	500	492	대한민국	KRW	2022. 6.10.	2025. 6.10.		N/A	8.62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기타** (단위: 백만원)

종류	평가금액	비고
REPO매수	200	
REPO매수	200	
REPO매수	100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출생연도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허남권	책임운용역	1963	74	3,365,315	1	1,063	2109000131
심창훈	책임운용역	1975	46	951,800	0	0	2110000545
박영훈	부책임운용역	1987	6	140,342	0	0	2116001380
고도희	부책임운용역	1983	18	253,308	0	0	2109001481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구분	기간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2007.10.23. ~ 현재	허남권
책임운용역	2017.11.17. ~ 현재	심창훈
부책임운용역	2022.08.26. ~ 현재	고도희
부책임운용역	2022.08.26. ~ 현재	박영훈
부책임운용역	2020.05.26. ~ 2022.08.25.	김준영
부책임운용역	2021.04.01. ~ 2022.08.25.	임승현
부책임운용역	2017.11.17. ~ 2021.03.31.	고도희
부책임운용역	2019.05.03. ~ 2020.05.25.	이청운

※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주1)}	금액	비율 ^{주1)}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	자산운용사	4	0.07	4	0.08
	판매회사	10	0.17	10	0.18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5	0.26	15	0.26
	기타비용 ^{주2)}	0	0.00	0	0.00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1	1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	0.01
		합계	1	1	0.02
	증권거래세	1	0.02	1	0.03

주1)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2)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구분	해당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비율 ^{주1)}	중개수수료 비율 ^{주2)}	합성총보수·비용비율	매매·중개수수료 비율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	전기	1.0355	0.0744	1.0355	0.0744
	당기	1.0356	0.0914	1.0356	0.0914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단위: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주1)}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9,710	670	22,106	620	37.87	150.23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냅니다.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2022. 1.27. ~ 2022. 4.26.	2022. 4.27. ~ 2022. 7.26.	2022. 7.27. ~ 2022.10.26.
70.99	25.84	37.87

7. 동일한 집합투자업자 펀드 투자현황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현황		투자대상	보유비율
집합투자기구명	발행총수(A)	집합투자증권 보유수(B)	(=B/A*100(%))
	해당 내역 없음		

8.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가.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본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 신용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이 모든 위험을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매중단 등 위험발생사유 또는 위험발생가능성 판단 사유
이 투자신탁은 기준일 현재 환매중단 등의 위험발생 및 위험발생가능성이 없습니다.

▶ 나. 주요 위험 관리 방안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컴플라이언스 수행 체계] 이 투자신탁의 컴플라이언스 점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 점검 : 주문 및 매매단계에서 사전컴플라이언스 점검시스템을 통해 운용상 제한사항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합니다. 시스템은 법규, 규약, 내규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제코드화 하고, 규제등급을 지정하여 점검합니다. - 장중 점검 : 주문체결 진행 중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위반사항을 점검합니다. 위반사항 발생시 가능한 당일 즉시 해소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최종 점검 : 매일 오전 9시 이전에 전일 매매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준수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최종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생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즉시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험관리 수행 체계] - 펀드 내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점검을 위해 베타, 보유 종목별 평균거래량 대비 보유비율, 전량매도 최소예상기일, 채권 자산 듀레이션, 신용등급별 보유비율, 발행주체별 보유비율 등의 위험지표를 활용하여 펀드 내 리스크 수준을 측정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전체 집합투자재산 및 각 개별 투자신탁의 펀드 유형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분류하여 위험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펀드의 위험 수준 및 위험허용한도 위반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 · 수단 등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펀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매중단, 상환연기 등과 관련된 환매재개, 투자금상환 등의 방안 및 절차 등
이 투자신탁은 환매중단, 상환연기 등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투자신탁입니다. 만약, 해당사항 발생시 규약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다. 자전거래 현황

자전거래규모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	-	-	-
최근 1년간 자전거래 발생 시, 자전거래 발생 사유, 관련 펀드간 이해상충등 방지를 위한 실시간 방안, 절차 등 해당 내역 없음			

▶ 라. 주요 비상대응계획

주요 비상대응 계획
위기상황 발생 기준에 대한 위험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 대응 업무처리방침을 통해 위기상황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펀드의 주요위험요소 및 유동성을 점검하며 위기대응을 실시합니다.

공지사항

1.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의 자산운용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 신영자산운용 홈페이지(<http://www.syfund.co.kr>) → 펀드정보 → 펀드명 검색 → 자산운용보고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http://dis.kofia.or.kr>) → 펀드공시 → 보고서 선택 → 자산운용보고서 선택 → 펀드명 검색 → 조회
3. 이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 전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 확인 및 고객정보 변경 처리는 펀드를 가입하신 판매회사의 지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메일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객님의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이메일 수령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환 신청은 가입하신 판매회사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용 어	내 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펀드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펀드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펀드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펀드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 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펀드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자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 받는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납입일(통상 매 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운용의 안정성과 펀드환매시 소요되는 여러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